

부활 제 6 주일

기도서 P. 300

제 1독서 (사도 8, 5-8, 14-17절)
제 2독서 (베드로 3, 15-18절)
부 음 (요한 14, 15-21절)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③5098)

□ 강 론 □



사랑과 계명

김 윤 섭 신부

봄은 사랑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청춘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며 노래하는 계절이지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약속을 많이 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반대로 아무 이유없이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싫던가 아니면 맘에 없음이 분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얼마 후에 제자들을 세상에 홀로 버려두고 아버지의 품으로 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부탁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아버지께 청하여 다른 협조자들 당신들에게 보내주셔서 당신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게 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고아들 처럼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꼭 돌아옵니다.”

계명이란 도덕적·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주의 사랑의 계명이 어떤이들에게는 가끔 거북한 말을 주고, 재미없게 합니다. 그들은 「주일에 미사참례 하라. 남을 욕하지 마라. 집잔이들이 배척하는 영화를 보지 마라.」 등 이런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들은 주의 계명을 책임과 의무, 금지와 구속, 귀찮게 엮어 놓은 그물로 생각하고 하느님께서 요구하는 일에 순종하기를 어려워 하며, 계명을 받아 드리는 것도 그저 벌을 받을까 무서워 하지 못해 받아 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경고합니다. 내 계명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현대인들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 싫어합니다. 덕보다는 재산을, 양심보다는 권력을, 진실보다는 거짓을, 희생보다는 배감을 아니 저 유다와 같이 하느님 보다는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 주일과 파공 침례를 지키지 않고 광분하고 있는 현대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의 처세술이 미련한 것 같고 바보스럽게만 보이는 주님의 무한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리라는 주님의 계명이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도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싶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합시다. 주일과 파공침례를 거룩히 지내도록 합시다. 주의 계명따라 우리가 거룩히 지낼 때 주님은 우리 마음에 사랑을 속삭일 것입니다. “내 계명을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한14/21).

계명이란 한마디로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우리를 하느님과 우리 이웃 및 우리 자신을 위해 유익하도록 주신 고마우신 주님의 부르심이다.

(진안본당 주임신부)



「4월 선언」 등

지난 4월 11~12일, 서울 상지회관에서는 전국의 60여 명 사제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세미나를 가졌다. 이들은 인권의 현실, 근로자 실태, 경제·사회·정치 등의 현실을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면서, 오늘을 사는 사제들의 사명을 주님앞에 재확인했다.

이들은 78. 4. 8일자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성명을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다짐하면서 체제·선거·근로자·농민·언론 등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4월 선언을 발표했다. (형편상 4월 선언의 전문(前文)만을 옮김),

「세상의 어두움을 복음의 빛으로 정화시키는 본연의 사명으로 하는 우리는 암울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한다. 각처에서 들려오는 민중의 신음소리를 정의와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 소리높여 외치는 우리의 목소리는 역사안에 삽리하는 하느님의 뜻이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명령에 따라 오늘 의 현실을 보며 우리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높이고자 한다.」

× × ×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동대문성당에서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 김지하(프란치스코)형제의 수감 3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미사와 기도회를 가졌다.

평소에 김 시인을 존경하고 아끼는 많은 문인들, 각계 인사들, 사제들은 기도회 끝에 다음과 같은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김지하는 독재와 억압이 지배하는 현시대를 양심과 문학인으로 밝히는 시대의 증언자이다. … 석방하고… 중지해야 한다. … 시정해야 한다. 우리는 이땅에 인간다운 삶과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가 보장될 때까지 억압에 대항하여 옥중에 있는 김지하와 더불어 싸울 것을 천명한다.」

숲 정 이 산책



어떤 사람이든 버락을 맞는데...

고산 다리실(천호동) 병인 순교자 분묘 조사기

김진소 신부(학생회관 관장)

1923년 6월 11일 오전 8시경 서울교구 더브레드(유) 보좌주교, 전주 전통본당 라그루(구) 주임신부, 서기 김 토마스는 천주의 증 정발도로메오, 정베드로, 한요셉의 무덤이 있는 고산 다리실로 향하여 오전 11시경에 도착하였다. 다리실 공소의 교우들중 김베드로 회장, 김방지거, 이토마스, 박비리버, 김마리아, 이다두, 장야고버, 송라파엘등이 천주의 증들의 무덤을 가리켜 주었다.

주교는 무덤과 무덤 부근을 세밀히 찾아 보았으나 위의 4명의 무덤이라는 아무런 표시도 발견하지 못했다.

교우들은 질문을 받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선언하였다.

1. 예전부터 다리실은 1866년 박해가 있기 수십년전부터 교우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 전해왔다.

2. 지금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4개의 무덤이 그 장소에 있었음을 경험으로 항상 알고 있다.

3. 이 무덤들이 일곱 순교자의 무덤이라는 말을 항상 들어 왔다.

4. 손베드로가 순교한 후 그의 아들들이 그 시체를 전주에서 이곳으로 옮겨 묻었다. 그 무덤은 두 무덤 사이에 있다. 손베드로의 장남이 생존시 한국관습에 따라 혼자서 또는 동생과 같이 또는 조카들을 데리고 자주 아버지의 산소를 방문하였다.

5. 다리실에서 15리 떨어진 곳에 사는 76세 가량의 김영문(요셉)의 말에 의하면 좌편 무덤은 여산에서 순교한 7명의 순교자들의 무덤일 것이라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이미 죽은 어떤 회장의 아버지가 여산 관장에게 참수 당하였는데 그 회장은 자기 아버지가 그 7명중에 있다고 믿고 생존시에 그 무덤을 돌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회장의 장남은 그러한 사실을 의심하고 그 무덤을 돌보지 않고 있다.

6. 김요셉(영문)의 말에 의하면 이미 죽은 또 다른 회장 김노렌조의 아버지도 같이 묻혔을 것이라고 하지만 김노렌조나 그의 아들들은 열심하다고 평이한 사람인데도 한번도 이 무덤을 찾아 돌본 적이 없었다.

증언이 끝난 다음 산소의 도면을 그리고 무덤들의 위치, 특히 손베드로 묘의 위치를 명백히 표시 하였다. 다음 참석 한 교우들에게도 그 도면을 제시하여 현장의 무덤의 위치와 도면의 위치를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비교가 끝난 다음 이구동성으로 도면이 정확하고 묘소의 위치가 잘 표현되었다고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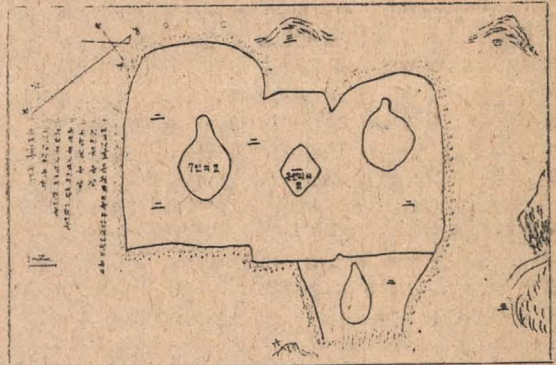
여기 참석한 교우들은 정발도로메오 정베드로 한요셉의 이름과 순교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시복조사

실의 증인들의 대답과 현지의 무덤의 환경으로 보아 네개의 무덤이 손베드로, 정발도로메오, 정베드로, 한요셉의 무덤인 것 같다. 이들은 같은 날 순교하고 같은 사람에 의해 매장되었다. 이같은 사실은 앞서 말한 김회장의 장남과 김요셉의 말을 들어 보거나 분묘를 발굴하여 보면 밝혀질 것이다. (이상은 라틴어로 된 조사록으로 그 밑에는 당시 참석했던 8명의 다리실 교우들의 증언이 아래처럼 실려 있다)

일천구백이십삼년 유월, 십일에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구 천호동) 후쪽에 있는 치명자 무덤 조사에 대하여 손신지 회장 무덤은 시체를 묻을 때에 한가지로 묻은 사람과 자손이 연속하여 내왕하며 무덤을 찾아 봄으로 의심 없이 손회장의 무덤인 줄을 증명하고 좌편 한 무덤을 동네 교우들이 말하기를 일곱 치명자를 합봉하였다 하며 전주 회전서 살던 김회장 부친도 한가지로 묻혔다 하나 벌써 죽었으므로 사실을 알수 없고 또한 순창 내동 살던 김회장 부친도 한가지로 묻혔다하나 생전에 내왕이 없었으며 또한 죽었으므로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함.

우리 여덟 사람은 무덤 도면과 위의 말씀이 분명함으로 서명 날인함.

김베드로, 김방지거, 리도마, 박비리버, 김마리아, 리다두, 장야고버, 송라파엘



이 도면을 보면 현재 전해지고 있듯이 7인묘와 손회장의 묘가 도면 왼쪽과 중앙에 있다. 그러나 오른쪽 묘와 아랫편 묘는 남아있지 않는데 천호동 공소에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아랫편 무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갱속에 묻혀 있다고 한다. 이 분묘 조사기에 의하여 전주교구 성지개발 위원회에서는 곧 발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 문서는 77년 11월 한국교회사 연구소에서 발견된 문서이다.

(경) 한국 레지오 마리에 창단 25주년 기념대회 (축)

레지오 마리에가 韓國 땅에 들어온지 올해로서 25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聖母님께서 주도하시는 끊임없는 기도와 묵묵한 봉사로 한국교회 발전의 밑거름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레지오 활동을 통하여 주님과 교회에 정성과 맘을 쏟은 모든분들께 이 기회에 감사드리며, 이 뜻깊은

은경축 행사에 교구내 단원들은 물론 뜻있는 신자들과 자리를 같이하고자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 5월 5일 오후 1시~4시 반
- *장소 : 광주 무등 경기장 (공설 운동장)
- *행사 : 미사 (주교님들과 신부님들 공동집전)
- 로사리오 기도 기념행사

선 언 문

“농협은 왜 우리를 기만하는가?” “색은 고구마를 보상하라!” “내 고구마를 사주시요” 농협의 창구에서 타들어가는 입술을 깨물며 보상을 요구했던 합평고구마 사진은 두 뺨을 몇달 남겨두지 않은채 농민의 목마른 외침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피해농민들은 끌어 오르는 울분들을 억누르면서 농협의 정당한 보상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농협은 계속 기습을 더해 농민 무시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이것은 자주적 협동조직을 통해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농협이 평소엔 주인인 농민을 전적으로 무시해온 자세로부터 나온 일면으로써, 농협의 반농민적인 속성을 다시 한번 개탄하지 않을 수 없겠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조합장 임명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라는 독버섯을 제정할지 15년동안 민수, 자립, 봉사, 사명을 외면한채 비로도입 부정사건, 강제출자의 의무화 보유양곡 방출로 농산물값 내리기, 농약강매행위와 농민위에 군림하는 구태의연한 관료적 속성을 더욱 노골화시키면서 관료독점 자본의 시너로서 계속 타락되어 가고 있다.

가장 민주적인 운영을 그 생명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관의 조합장 임명과 보호의 한계를 넘어선 지나친 간섭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노골적으로 성행되어 왔다. 합평 고구마 사진은 이러한 관료적이고 반농민적인 농협속성의 대표적인 산물임을 제삼 합하지 않을 수 없다.

농협은 이러한 모습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은 커녕 이제 농민의 민주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는 미명하에 운영위원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총대회의 기능을 대폭 약화시키고 총대 선출의 자격제한을 통해 이러한 비리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반농민적이고 비민주적인 농협의 속성은 농정부제의 산물임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해외의 존도만 증가 시켜주는 수출제일 주의로 지적되는 근대화의 미명아래 노동자의 저임금을 위한 저곡가 정책을 중심으로한 농민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농민의 품위와 존엄성은 여지없이 떨어져 농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풍년기근을 안겨준 못자리 짓밟은 신평중 강제권장, 영세농의 상환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인 주택 개량사업, 안덕 재벌들의 토지 투기와 기업체를 비호하는 특권의 토지강점 수출 대기업의 각종 특혜로 유발된 물가 폭등을 막기 위한 농산물 수입등, 농민의 이익을 무시한 획일적인 지시와 행정명령 일변도에 의한 관료적 횡포로 나타나는 농정은 결국 농민 경제를, 농민의 주체성을 압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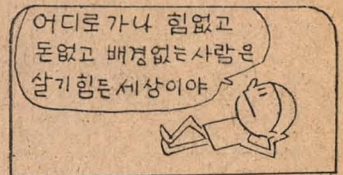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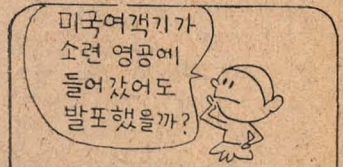
역사의 흐름속에서 참기 어려운 온갖 시련과 고난을 겪으면서 끈질기게, 우리의 역사를 보존해온 역사의 주체자인 농민이 오늘날 가장 비참한 처지로 전락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상태에서 누구보다 농민의 생존권 보호에 앞장서야 될 농협은 본래의 사명을 망각한채 오히려 합평 고구마 재배 농민을 농락하여 회유와 무성의한 답변으로 피해 농민의 보상요구를 외면해 왔다. 이러한 농협의 한심스러운 자태에 주인인 농민으로서 뼈저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합평 피해 농민의 정당한 보상, 농협의 전전한 발전추구를 위해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농민들의 결의는 민주농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적 공동선을 농촌사회에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는 합평 고구마 피해 농민들의 빼앗긴 피와 땀의 맺가가 보상되고, 농업 정책이 진정한 농민을 위해 수립 될 수 있는 바탕과 농협이 농민 조합원의 기반위에 자주성 및 민주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뜨거운 심장을 모아 협찬 실천활동을 계속 할것을 선언한다.

1978년 4월 24일

한국 가톨릭 농민회

요심이 (248) 김병오



언제나 애용해 주십시오

임금남찻집

전주 전신전화국 앞
전화 ② 5 0 1 3
김 원 준(야고버)

◇경운기·분무기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아크릴·아취·실내장치·각종간판
페인트·집활

전주 광고사

대표 이 기 배(요비노)

□ 전주시 다가동 1가 18

☎ ② 1 5 8 5

◎ 감초당 약국 앞

각종 보일러 시공담당(시공면허30호)

새마을보일러 전북총판

지역대리점 모집

중앙설비상사

전화 ③ 5 6 1 4

전주시 금암동 710~11

★ 양심을 찾자 ★

현대칼라 특약점

카메라 대여 학교앨범 각종 사진 출사

중앙 사진관

이리시 창인동 중앙시장 사거리

이리여고 입구 전화 7901

한 원 규 (야고버)

◎ 건강 관리 센터 ◎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 을 태

(시내버스 승차장)

전주 육교열 중앙시장통

(전화 ③ 4577, 5789)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열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그리스도 공동체 목사회 (5월 10일<수> 오후 2시-13일<토> 정오 가톨릭센터)
 - ① 종전의 형식과 다른 방법의 목사회에 많은 분의 참석 바랍니다. (교구단위 목사회는 많지 않습니다)
 - ② 50명을 대상으로 5월 5일까지 접수합니다 (회비 6000원)
2. 혼인문제 상담일 (5월 2일<화> 10시-오후 4시, 교구청 응접실)
3. L. M 25주년행사 (5월 5일<금> 광주에서)
4. 사제양성 후원 (돼지 저금통)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5. 농민회 세미나 (5월 4일-2시부터~6일)

(중앙)

전화 ②3651 3874

주임 신부 서동복
보좌 신부 송승배
사도 회장 이복석

1. 환영합니다! 정승현(요셉) 신부님을
 2. 저녁미사 후: 성모상 앞에서 묵주의 기도있습니다 (성모성월 동안)
 3. 어머니 합창단 월례회: 4일(목) 오후 2시
 4. 성심부녀회 월례회는 레지오 마리에 창설 25주년 기념행사(광주) 관계로 1주일 연기함
 5. 중·고학생회 체육대회: 5월 5일(금) 오전 9시-오후 6시 해성 중·고등학교 운동장
 6. 경로잔치: 10일(수) 신자 여러분들의 협조 바랍니다
 7. 견진성사: 5월 14일(성신 강림 주일)
견진성사를 받으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세요
견진교리는 8일(월)부터 시작합니다(강당에서)
교리시간: 오전 10시, 오후 8시 30분
 8. 교무금은 월별로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34, 851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조종택
사도 회장 김성호

1. 5월은 성모 성월: 성모상에 꽃 화분을 가정마다 봉헌을(매 미사후 공동으로 성모성월 바침)
 2. 사도회 월례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파티마 성모상 가경방문(저녁 9시)
5월 1일(월): 임종술(마태오) 2일(화): 조길웅(베드로) 3일(수): 서정환(야고버) 4일(목): 김현경(베드로) 5일(금): 임병년(모니카) 6일(토): 정동민(요셉) 7일(일): 이갑진(요안)
- 지난주 봉헌금: 137, 120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애령회: 주일미사 후 기도회 있음
 2. 영세자 특별교리: 5월 1일부터~13일까지 오후 8시
 3. 사도회 월례회: 공식미사 후
 4. 예수승천 야외미사 및 전신자 소동
일시: 5월 7일 11시 장소: 치명자산(중바위)
특기자랑: 반대향 노래자랑 있음
- 지난주 봉헌금: 48, 790원

(노송동)

전화 ② 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길
사도 회장 김성록

1. 사도회 상임위원회: 오늘 저녁미사 후
 2. 반회합(중노 2가): 5월 1일 5일 8시~10까지
 3. 미사시간 변경: 5월 5일(금) 어머니미사-오전 9시
 4. 청년 단합대회: 5월 5일 오전 8시 30분 본당 집결
장소-구이저수지(미사 있음)
준비물: 회비-500원 쌀 1인분 사무실에 접수
 5. 주일학교 소동: 5월 14일 현지에서 미사있음
후일 교회를 이끌어 줄 새싹들에게 무언가를.....
어린이 소풍에 참조해 주신 분들
박인철 박방지(각 2,000원) 박장춘 김규례 박성규 안말순 장성복 이재열(각 1,000원) 은경순 유영철 백복희 박분선(각 500원)
5월 7일까지 여러분의 성의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56, 175원

(숲정미)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1. 5월은 성모성월: 묵주기도 정성껏 바칩시다
 2. 예수승천 축일 야외미사: 서신동 뒷산
 3. 사도회 월례회: 5월 7일(일)원님 빠짐없이.....)
 4. 요안회: 오늘 공식미사 후 전원 참석바람
 5. 누갈다 부녀회 월례회: 5월 6일
 6. 신용조합 임시 임원총회: 조합원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7. 중·고생 단합대회: 4월 30일 오전 8시 출발
:구 수원지
 8. 전년도 교무금은 깨끗이 완납을.....
- 지난주 봉헌금: 100, 810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서석기
사도 회장 유제상

1. 미사시간 안내: 월 금요일-오전 10시 30분
화 수 목 토-오후 7시 30분
일요일-오전 10시 30분 오후 3시 오후 7시 반
 2. 부녀회 월례회: 미사 후(강당)
 3. 매월 첫 금요일: 오전 10시 어린이 보례있음
신청 바람
 4. 정확한 현주소 전화번호 사무실에 알려 주세요
 5. 미사 참례때 당신은 빈손이 아니신지요?
성가집 성서와 토.....
 6. 돼지저금통 봉헌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75, 00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이유
보좌 신부 유유
사도 회장 황순홍

1. 글라라 형제회: 오후 1시 30분
 2. 레지오 마리에 전래 25주년
광주 무등체육관 5월 5일 오후 1시.
※ 예수승천 야외미사
7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6시
 3. 예비자 교리: 일반: 주일 10시미사 후
학생: 주일 9시미사 후
젊은이: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직장인: 금요일 저녁 8시 30분
 4. 견진 예고: 21일(주일) 10시미사 중
 5. 공동체 목사회: 10~13일 센터(신청마감 5월 5일)
- 지난주 봉헌금: 150, 970원

(파티마)

전화 ②7249

주임신부 문정현

1. 4월 30일(주일): 오후 2시미사
2. 정규 미사시간: 주일: 오전 10시, 오후 6시
평일: 오후 8시